

옥정호 · 반려문화 등 미래 신성장 주력사업 집중 발굴

일 신우임진(日新又日新), 민선 7기 3년 을 씀 없이 달려온 심 민 군수가 이끌어 온 임실군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된 표현이다.

민선 5기까지 모든 군수들이 중도 낙마한 아픔을 딛고 민선 6기와민선 7기까지 지난 7년,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온 결과다. 역대 최초로 5천억원 예산시대를 달성하며 대도약의 발판을 다졌다. 무한한 성장을 이어온 임실N치즈산업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의 기치로 내건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는 미래의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의 보물 옥정호와 성수산 생태관광 개발, 반려문화산업 등 미래 신성장 주력사업을 집중 발굴했다.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임실군과 심 군수의 민선 7기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희망과 하반기 군정 방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5천억원 예산시대 실현

임실군의 지난해 최종예산은 5,131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5천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심 군수가 처음 취임했던 2014년의 2,886억원과 비교했을 때 77.8%가 증가한 놀라운 성과다. 심 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꾸준히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확보는 물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직접 중앙부처를 오가며 설득하고, 각종 공모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다.

미래 신성장 주력사업 집중 육성

전북의 보물 심진강 옥정호는 민선 6기가 시작된 2015년부터 추진한 제1기 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329억원)을 통해 봉어섬 에코가든, 에코누리캠핑터, 봉어섬 출렁다리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총길이 410m의 봉어섬 출렁다리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신비의 섬인 옥정호 봉어섬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제2기 심진강에코뮤지엄 조성(250억원)은 올해 5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스카이라이프, 운암교 캠핑장, 운암대교 수변공원 등 옥정호 권역 생태관광 개발의 완성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밖에 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과 옥정호 물문화물레길, 운종교차로 개선(150억원) 등 옥정호를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를 품은 명산 성수산은 누구나 머물고 즐기는 자연 친화적 관광기반 휴양시설 구축 사업이 한창이다.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과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등 치유의 숲 성수산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오수의연 설화를 갖고 있는 오수면에 반려동

▶ **심민 군수의 포부**

심진강 르네상스 군민에게 희망 전파

"남은 임기동안 임실N치즈 연계 관광벨트 구축"

민선 7기 임실군의 최초 5천억원대 예산시대를 실현한 심 민 군수는 "봉어섬 출렁다리 등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옥정호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도 과감하게 추진하여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임실군을 만들어 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임실N치즈와 성수산 오수의연관광지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진주 한옥마을을 찾는 천만 관광객이 임실로 올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군수는 "앞으로 1년여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들을 위해 뛰겠다"며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리는 군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봉어섬 조감도



오수의연관광지 차벽캠핑장

물산업 거점 육성이 추진 중이다. 현재 오수의 연관광지 근처에 오수 펌 추모공원(50억원)이 건립됐으며, 반려동물 지원센터(80억원) 건립이 진행 중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될 오수 제2농공단지(198억원)를 연계 개발해 세계 명견 테마랜드 관광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임실N치즈산업 저변 확대

민선 6기가 들어선 지난 2015년 심민 군수의 특시로 처음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해마다 대성공을 거뒀다. 4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2018 유망축제와 2019 우수축제로 선정, 2020~2022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특히 2019년에는 태풍 '미탁'과 '하프리카 돼지열병'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개막식 인파를 포함, 4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 전국의 대표적 지역축제로 성장했다.

임실N치즈 경쟁력 강화사업도 추진되었다. 제2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165억원)와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30억원)를 구축했다. 임실 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37억원) 등도 추진되면서 임실N치즈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172억원)와 임실 치즈역사문화관 건립(80억원), 임실N치즈 농촌 테마공원(97억원) 등 임실N치즈산업 신성장 동력도 확보했다.

군민 중심 생활SOC 사업 적극 확대

국무조정실 주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임실을 주민자치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를 결합한 임실을 행복누리원이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총 120억원(국비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옥정호 봉어섬 에코가든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박차'

오수에 반려동물산업 거점 육성

N치즈 저변 확대 · 효심정책 '호응'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는 오수면 사무소 신축과 함께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결합한 오수면 행복누리원(100억원)이 선정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생활복지센터 지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3년간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62억원), 임실공공도서관(55억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42억5000만원), 임실 행복나눔센터(44억원)을 비롯해 정신건강자치매입센터(28억원), 청운면 복지회관(20억원), 운암면 복지센터(11억원)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구축됐다.

세계적 관광·축제의 고장 임실 견인

주요 지역지원인 옥정호-임실N치즈-성수산 의견관광지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세계적 연계든 사업이 찾고, 머물고 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해가고 있다. 옥정호 권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세계적 장미원 조성, 성수산 산림생태휴양지 조성, 세계명견 테마랜드 관광지 조성 등 권역별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완료되면 체류형 관광인

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특히 봄에는 의견문화제(5월), 여름 아쿠아 페스티벌(7~8월), 가을 임실N치즈축제(10월), 겨울 산타축제(12월)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세계적 대표축제를 적극 육성·확대했다.

지역 장기발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을 동력을 다수 확보했다.

2019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6억원(국비 49억원)이 투자되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로컬푸드 고도화로 임실군 농촌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9년 12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실 성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0억원(도비 84억원)이 투자된다. 안심골목길, 우리동네 박물관 백로생태관 등 조성으로 대한민국 치즈발상지의 재탄생과 치즈역사 문화공간을 연계한 주민 주도 도시재생이 실현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 2월에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융합 시범사업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중점 추진 '효심정책' 높은 호응

임실군은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38%인 초고령 지역으로 사업추진 시 효심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3층 연면적 2,325㎡인 노인종합복지관을 2019년 9월에 완공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294명, 2020년 1,759명, 2021년 1,900명으로 매년 참여 인원이 늘어나 참여자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349개소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를 파견하고,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목욕 쿠폰을 매년 13회 지급했다.

'코로나19' 체계적 대응, 확진자 최소 유지

군은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2020년 3월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총 7만4,000여개(세대당 5~12매)의 마스크를 군민 전체에 무상배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2020년에 총 3회에 걸쳐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했다. 이어 올해 6월에도 1인당 5매씩 총 13만5,000여개의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배부했다.

2020년에는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 현금 10만원 지급과 함께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10만원을 배부했고,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과 무급 휴직자 생계비 등 일지라를 지원했다.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타 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할 정도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방의회 부활 30년
심표 있는 **도민**의 일상
마침표 없는
전라북도의회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
전라북도의회